

존 오스왈트 박사, 열왕기, 30회, 1부

열왕기하 24-25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정말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책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선택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약간의 희망의 빛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20~25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시야는 609년에 죽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정부 내의 반이집트 세력에 의해 왕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3개월만 버틴 뒤 이집트인들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땅에 막대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그의 형인 여호야קים을 왕위에 앉혔고, 내 생각에는 여호야קים이 진정한 정치가였습니다. 여기 정치인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이며 권력으로 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605년 느부갓네살이 침입하자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말을 바꾸었고, 그 후 애굽 국경에서 바벨론이 패하자 다시 편을 바꾸어 바벨론에 반역을 일으켰다. 그들은 좌절을 딛고 돌아와서 그 곳을 포위하였다. 조이, 나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8세 된 그의 어린 아들 여호야קים이 왕위를 계승하고 즉시 항복했습니다. 그와 나머지 왕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사람들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그의 삼촌을 유다 왕위에 앉히고 그의 이름을 맛다냐에서 시드기야로 바꾸었고 시드기야는 극으로 다스리는 남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그렇게 불고, 결국 그는 반란을 일으켰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서 도시를 포위하고 파괴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음, 그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석 달 동안 여호아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32절에 보면 그는 그 열조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야김을 보면 그도 그 열조의 행한 대로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있느니라.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더 길고 긴 조상들, 특히 므낫세와 암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므낫세가 패튼을 설정한 것이지 그 표시가 아닌 것이 매우 분명하며 그 패튼에는 요시야의 브레이크가 있었지만 패튼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므낫세의 죄로 인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므낫세 자신이 52년 동안 많은 끔찍한 일들을 행했지만 우리가 그토록 많이 행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국가에 심었고 계속해서 이어진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요시아 사건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와 국가의 역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는 지난 2세기 동안 경건한 사람들의 추진력에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추진력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질문은, 국가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가족과 우리 노선에서 어떤 추진력을 구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여러 세대의 신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카렌의 고조할아버지 맞죠? 저 사람은 해리의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해리의 할아버지인가요? 좋습니다. 고조할아버지는 감리교인이셨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는 뉴욕 북부의 형제회 순회 작가였던 존 웨슬리 클라크였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는 하나님 께 기도하는 유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과 내가 어떻게 선을 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여러분이 어떤 선례를 세워 앞으로 4대에 걸쳐 자식이 아버지의 길을 간다고, 어머니의 길을 간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 입니다. 주님, 허락해 주소서. 그런데 왜 이것이 순전한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십니까? 왜 그가 요시야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요시야가 통치했습니다. 그는 죽었을 때 39세였지만 31년 동안 통치했고,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12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8세, 예, 좋습니다.

가끔 메모리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간 동안 통치했으며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정력적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왜 그를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판결하느라 바빴는데, 그는 3개월만 통치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성읍 립나 출신이었다. 이 세 소년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들이요 모두 아버지를 따르는 자가 없더라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시민이 되려면 어머니가 유대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헝가리인일 수도 있지만, 위대한 유대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스라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렘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날 이틀이 지난 지금,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추측이지만 요시야가 어떤 이유에서든 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비극의 일부. 그러므로 24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므낫세의 죄와 그 지은 모든 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을 그 앞에서 제하려 하여 말씀의 명령대로 이런 일이 유다에게 일어났느니라.

거기는. 국민의 마음과 생각에 변하지 않는 궤적을 설정하신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내리막길로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려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상 숭배자가 되기 쉽습니다. 환경, 삶, 본성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백성을 인도한 방식은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므낫세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나중에 어떤 선한 일을 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두실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므낫세는 그들이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궤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떠나자마자 그들은 불평도 없이 곧바로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둘 다 므낫세가 세운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 여호야김이 누구였는지를 반영하는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사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밖의 나라들에 대한 나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신지라 요시야 시대의 첫 번째 메시지로 시작하십시오. 현재까지의 모든 메시지를 적어보세요.

혹시 유다 백성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재앙을 다시 들으면 회개할 것 같으니라. 그러면 나는 그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 궤도가 정해져 있구나.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행하였으므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리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보세요, 그것이 제가 전에 이스라엘의 예언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교도들에게는 별을 보고, 양의 간을 보고, 새들의 비행을 보고, 그런 일이 내일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표지판의 모양에 따라 미리 결정됩니다. 히브리 선지자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 되어 들어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로 생활은 잊혀진 결론입니다. 므낫세, 당신의 선택이 바뀌지 않는 한. 성경의 예언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영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봅니다. 스가랴처럼 예루살렘은 다시는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스가랴는 거짓 선지자 스가랴였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신실하였더라면, 믿었더라면.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교도적 사고방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 신은 그것을 예측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상관없어요.

아니, 유다. 그 늦은 날짜에도. 망명 생활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닙니다. 확립된 패턴과 우리가 최악된 행동에 쉽게 빠지는 것을 고려하면 말이죠.

하지만 바뀔 수 있을까? 전적으로.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받아 적어.

받아 적어. 요아킴의 통치가 시작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 바벨론 사람들에게 팔려갈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당신이 보낸 모든 메시지를 적어보세요. 우와.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물론 제자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말한 모든 것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기관 바룩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여 두루마리에 담고 바룩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기 3절과 21절 사이에 그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절기에 사람이 많을 때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일부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이 요아킴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은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예후디를 보냈습니다.

예후디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와 왕의 모든 신하들이 곁에 섰는 가운데 그것을 읽어 주었습니다. 때는 늦가을이었고, 왕은 궁궐의 겨울 방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후디가 서너 개의 난을 다 읽을 때마다 왕은 칼을 들고 두루마리의 해당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 부분씩 불 속에 던졌습니다. 두루마리가 다 타버릴 때까지.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다.

엘라단과 들랴와 그마랴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제 그들이 요시야에게 신명기를 읽어 주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괴로움에 옷을 찢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맏소사.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이고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반역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반역하여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 맏소사.

너무 쉽게 말씀이 굳어져서 한 권의 책이 될 뿐입니다. 오래된 책. 골동품 책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얇은 책 속에는 항상 그리고 오늘 밤을 위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